



180m 담장을 캔버스로...

하늘을 천장으로 삼은 노천 갤러리

대구와 인연 맺은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만날 수 있어

### #1. 후미진 골목이 갤러리로

들안길의 뒷골목에는 시화거리가 있다. 어둡게 얼룩져 있던 후미진 골목길이 하늘을 천장으로 삼은 노천 갤러리가 된 것은 2014년, 박숙이 시인이 처음 의견을 내고, 조규화 수성구의원과 시인인 김삼조 수성구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자문은 박해수 시인, 벽화 작업은 수성구미술가협회의 화가들이 맡았다.

그리고 2014년 3월, 아직은 차가운 봄날에 들안길의 상가 담장 180m를 캔버스로 두고 화가들의 작업이 시작, 햇살 뜨거운 8월의 여름에 완성되었다.



수성못 인근의 들안길 시화거리





들안길 시화거리에서는 이육사, 유치환, 이상화 등 대구와 인연을 맺었던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수성못 쪽 들안길 초입에 우뚝 선 장승과 하늘을 곧 날 듯 솟은 솟대가 시화거리의 입구다. 장승은 중요무형문화재 69호인 안동 하회마을 타목 김종홍 선생이 직접 제작해 2014년 6월30일 직접 시공한 것이고 솟대는 시인이자 조경학 박사인 이석해 선생의 작품이다. 거기서부터 수성구의 변천사가 담긴 사진 전시장, 시 갤러리, 그림 갤러리 등 다양한 코너가 이어진다.

## #2. 이상화 · 박목월 · 이인성 · 이쾌대 등의 작품이...

시 갤러리에서는 이상화의 '비 갠 아침', 고월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이육사의 '청포도', 유치환의 '깃발', 박목월의 '사월의 노래', 이호우의 '달밤', 김춘수의 '꽃', 신동집의 '빈 콜라병', 정호승의 '봄길', 류병률의 '물망초' 등 대구와 함께 했던 문인들의 명시를 만날 수 있다.

그림 갤러리에는 대구의 화가



이인성, 이쾌대, 정점식, 박명조 등의 작품이 재현되어 있다.

이중섭과 친구들 코너에는 이중섭이 하늘로 떠나기 전 마지막 소풍처럼 지냈던 대구에서의 인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와 인연을 맺었던 구상 시인과 시인의 가족을 비롯해 대구 미문화원장을 지낸 맥타카트와 왜관의 성 베네딕트 수도원, 왜관성당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

거리의 꼬트머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꼬마버스 타요' 코너와 추억 만들기 코너가 있다. 담벼락에 추억을 새길 수도 있고 파란색의 '시 소식통'에 시를 적어 놓으면 담벼락에 시를 걸어주기도 한다. 옛날 이상화 시인의 애꿎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어(詩語)는 이제 과거를 이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 내일로 이어지고 있다.



들안길 시화거리에서는 한때 대구에서 지냈던 천재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